

광주대표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자원 인식 연구*

A Study on Information Resources Recognition for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of Gwangju Representative Library

박 성 우 (Seongwoo Park)**

초 록

이 연구는 광주대표도서관 건립의 핵심 요소인 장서개발정책 수립을 위해 정보자원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은 장서개발의 이해관계자인 사서·이용자·도서관 3개 집단으로, 각 68명, 98명, 20개관이 조사에 응답하였다. 조사분야는 정보자원의 유형, 정보자원의 주제, 정보자원의 수준 3개 분야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서 집단은 이용자 집단에 비해서 선호도와 필요도의 상관계수가 낮게 나타났다. 둘째, 특정대상 지원자료는 낮은 선호도와 낮은 필요도를 보였지만, 실제 이용률은 상위권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서들은 고문서 및 고서, 박물관, 기술보고서, 학술논문을 대표도서관으로 이관하기를 원했다. 넷째, 철학 정보 자원은 선호도 중위권, 필요도 최하위권, 이관 필요성 최하위권이였다. 다섯째, 향토자료와 시정자료는 이용률 하위권과 이관 필요성 최상위권이였다. 여섯째, 현재 광주 지역 공공도서관의 정보자원 수준은 1.837, 대표도서관 요구 정보자원 수준은 3.325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Study is to investigate information resources recognition of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that is a key element of Gwangju representative library. 68 Librarians, 98 library users and 20 libraries responded the questions of information resources. The fields of the questions are media, subjects and levels of information resource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librarian group's preference and need is lower than that of the user group. Second, information resources for the knowledge-disadvantaged has low preference and need but the actual usage rate was high. Third, Librarians need to transfer historical paper and books, historical objects, technical reports and journal articles to the representative library. Fourth, information resources about philosophy have middle preference, low need and the resources have low need for transfer to representative library. Fifth, local historical resources and administrative policy resources has low usage rate high need for transfer to representative library. Sixth, the level of public library in Gwangju is 1.837 and the expectative level of Gwangju representative library is 3.325.

키워드: 대표도서관, 장서개발정책, 정보자원 인식

Regional Representative Library,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Information Resources Recognition

* 이 연구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 「광주대표도서관 운영종합계획 수립용역」(2020. 11)의 일부를 수정·요약·보완하고 수집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분석한 것임.

** 광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culturepark@gwangju.ac.kr)

논문접수일자 : 2023년 8월 16일 논문심사일자 : 2023년 8월 19일 게재확정일자 : 2023년 9월 9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4(3): 205-225, 2023.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3.34.3.205>

※ Copyright © 2023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광역대표도서관(이하 대표도서관)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의 도서관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지정 또는 설립된 도서관이다(도서관법, 제25조). 2023년 7월 기준 17개 시·도 중 서울·울산·충남·전남·경북·경남·제주·부산 등 8개 시·도는 대표도서관을 신규 설립 개관하였고, 인천은 미추홀도서관의 전신인 인천시립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 후 미추홀도서관을 준공하여(인천광역시미추홀도서관, [n.d.]) 대표도서관으로 지정 설립하여 총 9개 시·도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을 설립 운영 중이다. 강원·충북 2개 시·도는 기존 공공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기존 공공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나, 대표도서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는 시·도는 광주·대구·경기도·대전 4개 시·도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1. 31.).

이 중 광주는 광주광역시립무등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면서, 동시에 2016년 폐쇄가 결정된 서구 치평동 상무소각장 부지에 대표도서관 건립을 결정하여 2019년 11월 대표도서관 건립사업 국제설계공모, 2020년 8월 광주대표도서관 운영종합계획 수립 등을 실시해 2022년 11월 착공하였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지정 운영에서 신규 건립으로 전환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개관 시 인력·시설·장서 수립 측면에서 기존 도서관의 체계를 어디까지 준용할 것이고 어디부터 새롭게 구성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특히 장서 측면에서 구체적으로는 신규로 수집되는 장서, 기존 대표도서관 소장 장서, 포화 상태에 이른 개별 공공도서관의 장서 이관 수요 등 복합적인 사안에 일관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관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장서개발정책의 수립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광주대표도서관 건립의 핵심 요소인 장서개발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장서개발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지역사회연구, 이용자연구, 법·제도적 연구 중 이용자의 정보자원 인식에 초점을 맞춘다. 대표도서관은 일반적인 도서관의 신축과 달리 기존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과 이용자 본위의 정보서비스를 함께 제공해야 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대표도서관의 서비스 대상은 이용자뿐만이 아니라 사서도 포함되며, 정보자원에 대한 접근이 1차적인 이용에서 나아가 이관이나 보존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대표도서관이 가진 고유의 역할에 근거해 정보자원 인식을 탐색하는 데에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대표도서관의 역할

대표도서관은 거시적 측면에서는 광역단체에서 도서관을 총괄 및 지원하는 '도서관의 도서관' 역할과, 미시적 측면에서는 관할지역 주민에게 서비스를 수행하는 하나의 공공도서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점에서 다른 도서관과 구분되며 양가적인 특성을 가진다(김영기,

장덕현, 이용재, 2015; 배순자, 2008; 윤희운, 2017). 이 점에서 대표도서관의 인력·시설·장서의 기준은 다른 규모의 공공기관을 상회하며, 특히 장서의 경우 도서관법 시행령 기준 기본장서 20만점 및 연간 2만 점 이상의 신규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공공도서관으로서 법정 업무에 해당하는 '자료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뿐 아니라,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법정 업무에 해당하는 '시·도의 종합적인 장서개발 정리·보존·제공'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업무는 시·도의 가치를 보존하고 기억을 전승하기 위한 '디지털 장서개발 및 아카이빙 주도'와 '시·도 행정 정보·향토자료 수집 보존'(윤희운, 2017, 15)라는 추가적인 업무로 확장된다. 이러한 확장은 대표도서관이 가진 이러한 이중적 역할은 단순한 정보서비스 영역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단체 단위에서 지식정보의 기억과 제공, 보존을 통합한다는 대표도서관 건립 및 운영의 본질적인 목적에 근거한다.

근대 공공도서관 성립 이후 장서선택의 주된 관점은 가치론과 요구론의 대립으로 이루어졌다. 도서와 독자를 이분하여 보는 담론에서 Wellard의 도서선택론과 같은 통합의 관점,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과정으로 변화해왔다. 1958년 캘리포니아대학 도서관학교의 심포지엄에서는 장서선택에 있어서의 가장 큰 변화는 확일성에서 다양성으로의 사회 가치 변화임을 제시했다(윤희영, 2020, 138). 이 다양성은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로 환원되며, 정보 매체의 유형·주제·수준 등에서 복합적인 요구들을 분석하여 최적의 제공 방안을 반영해야 함을 시사한다.

윤희영(2020, 140-145)은 Wellard의 도서선택론을 원용하여 선택 원리를 지배하는 공통적인 요인이 도서의 가치, 이용자의 요구, 도서관의 목적이며, 환경 변화로 자료 제공의 시간적 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서의 가치는 Phinney와 같은 학자에 의해 본질적 가치, 상대적 가치, 제도적 가치로 분화되지만, 상대적 가치는 이용자의 요구, 제도적 가치는 도서관의 목적과 상응되며, 다시 윤희영이 원용한 Wellard의 도서선택론으로 환원된다.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대표도서관이 가진 거시적 역할(도서관 지원)과 미시적 역할(이용자 서비스)을 양가적으로 고려함과 동시에 광주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광주대표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을 둘러싼 다양한 가치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도서의 가치는 본질적 가치, 상대적 가치, 제도적 가치로 분화하는데 이 중 상대적 가치는 독자의 요구에 상응하며 제도적 가치는 도서관에 상응한다.

특히 대표도서관은 지역도서관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법정 역할이 주어지기 때문에(윤희운, 2017), 지역도서관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서비스 대상이 이용자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사서에 게까지 확장된다. 사서는 정보자원을 이용 대상일 뿐만 아니라 업무 관리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이 업무에는 이관과 보존 등 복합적인 활동이 포함된다. 따라서 이용자와 사서가 정보자원을 보는 관점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사서 집단과 도서관 기관, 이용자 집단을 포괄적으로 조사 및 비교하여 정보자원 인식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2.2 광주광역시 지역 현황

광주는 2020년 기준 5개 자치구에 95개 행정동을 가진 인구수 국내 6위의 광역시로, 산지지역과 평야지대의 접촉지에 자리하여 군사·행정·교역상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호남지방 최대의 도시이다. 국토 서남권 산업경제 및 중추권의 중심지이다(광주광역시청, [n.d.]). 광주의 2020년 기준 인구구성은 다음 <표 1>과 같다(행정안전부, 2020. 9. 1.).

전체 인구는 1,454,154명으로 이 중 생산가능인구가 1,054,448명(72.5%), 유소년 인구가 196,968명(13.5%), 노년 인구가 202,738명(13.9%)

에 해당한다. 인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북구가 433,279명(29.8%)이고, 가장 적은 자치구는 동구로 99,159명(6.8%)이다. 이 중 광주대표도서관 부지가 속한 행정동인 치평동은 전체 인구가 30,566명(2.1%)에 해당한다. 이 30,566명 중 생산가능인구는 23,675명으로 30,566명 대비 77.5%가 생산가능인구고, 유소년인구는 3,594명으로 11.8%, 노년인구가 3,297명으로 10.8%로 광주광역시 전체 대비 생산가능인구가 다른 인구집단보다 많은 대상지이다. 광주광역시의 생활SOC 분포 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유미현, 홍소람, 윤가인, 2019).

2020년 기준 전체 시설 중 거주자 주차장이

<표 1> 광주광역시 인구구성(2020년 8월 기준)

| 대상 | 전체 | 유소년인구 (0세~14세) | 생산가능인구 (15세~64세) | 노년인구 (65세~) | |
|-------|-----------|-------------------|---------------------|----------------|--------|
| 광주광역시 | 1,454,154 | 196,968 | 1,054,448 | 202,738 | |
| 자치구 | 동구 | 99,159 | 9,701 | 67,763 | 21,695 |
| | 서구 | 298,644 | 36,979 | 219,800 | 41,865 |
| | 남구 | 215,701 | 28,766 | 149,693 | 37,242 |
| | 북구 | 433,279 | 54,436 | 314,844 | 63,999 |
| | 광산구 | 407,371 | 67,086 | 302,348 | 37,937 |
| 대상지 | 치평동 | 30,566 | 3,594 | 23,675 | 3,297 |

<표 2> 광주광역시 생활SOC 분포 현황(2020년 기준)

| 대상 | 공공 도서관 | 국공립 어린이집 | 국민 체육센터 | 작은 도서관 | 다함께 돌봄센터 | 건강생활 지원센터 | 거주자 주차장 ¹⁾ | 생활 문화센터 | 공공육아 나눔터 | 가족 센터 | |
|-------|-----------|-------------|------------|-----------|-------------|--------------|--------------------------|------------|-------------|----------|---|
| 광주광역시 | 23 | 32 | 8 | 406 | 0 | 6 | 424 | 8 | 3 | 5 | |
| 자치구 | 동구 | 3 | 2 | 3 | 36 | 0 | 1 | 227 | 1 | 0 | 1 |
| | 서구 | 5 | 9 | 2 | 74 | 0 | 1 | 44 | 4 | 1 | 1 |
| | 남구 | 5 | 3 | 0 | 65 | 0 | 2 | 19 | 1 | 1 | 1 |
| | 북구 | 4 | 12 | 2 | 145 | 0 | 1 | 75 | 1 | 0 | 1 |
| | 광산구 | 6 | 6 | 1 | 86 | 0 | 1 | 59 | 1 | 1 | 1 |
| 대상지 | 치평동 | - | - | - | 4 | - | - | 2 | 1 | - | - |

1) 유료주차장 포함

424개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작은도서관(406개), 국공립어린이집(32개), 공공도서관(23개) 순으로 많다. 공공도서관은 광산구(6개)에 제일 많고, 광주대표도서관 부지가 속한 대상지인 치평동에는 작은도서관이 4개, 거주자 주차장이 2개, 생활문화센터가 1개 위치해있고 공공도서관은 별도로 위치하지 않는다. 해당 지역에 공공도서관의 개관 필요성이 방증되는 측면이다. 공공도서관 자원 관련 지표는 다음 <표 3>과 같다(문화체육관광부, [n.d.]).

물적자원인 장서와 인적자원인 사서 지표는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1관당 장서수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감소추세이다가 2018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1관당 사서수는 2015년 5.1명에서 5.3명으로 증가하다가 2017년과 2018년 각 5.2명, 5.1명으로 감소하나 2019년에는 다시 5.6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1인당 장서수는 15년 1.57권부터 2019년 1.82권까지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다. 2019년 기준 1관당 장서수가 광주 전체 1관당 장서수인 115,565권보다 적은 자치구는 서구(108,670권)와 광산구(74,590권) 뿐이고, 1관당 사서수는 광주 전체가 5.6명인데 반해 동구(4.7명), 남구(4.8명), 광산구(3.8명)가 그보다 적다. 1인당 장

서수는 광주 전체가 1.82권인데 서구(1.81권), 북구(1.50권), 광산구(1.10권)가 적다. 광주대표도서관 부지가 위치한 치평동은 서구에 속해 있다. 서구는 인적자원인 1관당 사서수는 6.2명으로 자치구 중 2위인 반면, 1인당 장서수는 광주 전체인 1.82권보다 적으며 전체 자치구 중 3위에 해당한다. 광주대표도서관의 건립 이후 장서량에 대한 보완과 장서개발정책의 수립이 중요함을 방증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이용 관련 지표는 다음 <표 4>와 같다(문화체육관광부, [n.d.]).

광주 공공도서관의 이용지표는 감소와 증가를 반복 중이다. 1관당 방문자수는 2015년에서 2017년까지 감소하다가 2018년부터 증가추세이며, 1관당 대출도서수는 2017년까지 감소하다가, 2018년 증가하다 2019년 다시 감소 추세이다. 광주대표도서관 소재 행정동인 치평동이 속한 서구의 경우, 1관당 방문자수는 광주 전체인 308,571명을 상회하며 전체 자치구 중 2위인 374,699명에 해당한다. 또한 1관당 대출도서수 또한 광주 전체의 108,366권을 상회하며 북구(129,670권) 다음으로 많다(119,233권). 서구는 인구수가 광주 자치구 중 3위이지만 광주 전체 1관당 장서수(1.82권)보다 1관당 장서수가 적다(1.81권). 그런데도 1관당 방문자수 및

<표 3> 광주광역시 공공도서관 자원 관련 지표

| | 2015 | | | 2016 | | | 2017 | | | 2018 | | | 2019 | | | |
|-------|---------|---------|---------|---------|---------|---------|---------|---------|---------|---------|---------|---------|---------|---------|---------|------|
| | 1관당 장서수 | 1관당 사서수 | 1인당 장서수 | 1관당 장서수 | 1관당 사서수 | 1인당 장서수 | 1관당 장서수 | 1관당 사서수 | 1인당 장서수 | 1관당 장서수 | 1관당 사서수 | 1인당 장서수 | 1관당 장서수 | 1관당 사서수 | 1인당 장서수 | |
| 광주광역시 | 110,264 | 5.1 | 1.57 | 108,618 | 5.3 | 1.63 | 108,480 | 5.2 | 1.7 | 112,535 | 5.1 | 1.77 | 115,565 | 5.6 | 1.82 | |
| 자치구 | 동구 | 139,124 | 3.7 | 4.23 | 139,167 | 3.7 | 4.36 | 139,497 | 4.3 | 4.38 | 140,577 | 4.3 | 4.46 | 142,476 | 4.7 | 4.34 |
| | 서구 | 96,331 | 5 | 1.58 | 101,552 | 5.6 | 1.64 | 104,978 | 5.6 | 1.71 | 108,367 | 5.8 | 1.78 | 108,670 | 6.2 | 1.81 |
| | 남구 | 128,278 | 5.5 | 2.32 | 130,960 | 5.3 | 2.38 | 112,742 | 4.6 | 2.58 | 115,184 | 4.2 | 2.66 | 117,554 | 4.8 | 2.70 |
| | 북구 | 134,139 | 9 | 1.2 | 139,075 | 9.3 | 1.26 | 147,066 | 8.5 | 1.34 | 154,383 | 8.5 | 1.4 | 162,975 | 9.3 | 1.50 |
| | 광산구 | 73,371 | 2.8 | 0.92 | 64,031 | 3.3 | 0.95 | 66,616 | 3.5 | 0.99 | 71,880 | 3.5 | 1.07 | 74,590 | 3.8 | 1.10 |

자료기준) 장서는 인쇄자료 기준, 사서는 정규직 기준, 1인은 봉사대상 주민 수

〈표 4〉 광주광역시 공공도서관 이용 관련 지표

| | 2015 | | 2016 | | 2017 | | 2018 | | 2019 | | |
|-------|----------|-----------|----------|-----------|----------|-----------|----------|-----------|----------|-----------|---------|
| | 1관당 방문자수 | 1관당 대출도서수 | 1관당 방문자수 | 1관당 대출도서수 | 1관당 방문자수 | 1관당 대출도서수 | 1관당 방문자수 | 1관당 대출도서수 | 1관당 방문자수 | 1관당 대출도서수 | |
| 광주광역시 | 423,220 | 150,935 | 353,534 | 134,306 | 276,266 | 108,332 | 300,008 | 116,715 | 308,571 | 108,366 | |
| 자치구 | 동구 | 368,943 | 109,515 | 347,022 | 106,297 | 204,487 | 52,257 | 273,319 | 90,536 | 294,608 | 86,015 |
| | 서구 | 542,798 | 152,402 | 486,522 | 141,690 | 403,793 | 126,498 | 398,206 | 116,169 | 374,699 | 119,233 |
| | 남구 | 401,079 | 161,448 | 344,095 | 150,621 | 283,795 | 114,868 | 249,805 | 114,779 | 220,298 | 106,482 |
| | 북구 | 558,223 | 246,170 | 513,372 | 211,807 | 351,472 | 165,691 | 490,138 | 190,598 | 447,028 | 129,670 |
| | 광산구 | 245,918 | 89,722 | 145,700 | 79,614 | 149,471 | 77,546 | 146,604 | 82,618 | 241,703 | 97,852 |

대출도서수가 광주 전체 수를 상회하기 때문에, 서구 지역은 도서관 이용 수요가 소장 자원 대비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공공도서관 환경 관련 지표는 다음 〈표 5〉와 같다(문화체육관광부, [n.d.]).

광주 공공도서관 이용 환경지표는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로, 1관당 봉사대상 인구수는 2015년에서 2019년 대비 약 7,000명 가량이 급감하여 10% 가량이 감소하고 사서 1인당 봉사대상 인구수는 13,631명에서 11,290명으로 21% 가량 감소하고 있다. 이 중 서구의 경우 2015년 대비 2019년 인구 비율이 61,006명에서 60,195명으로 1% 가량 근소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도서관 확충을 통해 지속적인 봉사대상 인구수

감축이 필요하다. 반면 사서 1인당 봉사대상 인구수의 경우 서구는 2015년에서 2019년 대비 26%가 감소하고 있었다. 2019년 기준 1관당 사서수 측면에서도 북구(9.3명) 다음으로 서구(6.2명)가 많았다는 점에서, 사서 인력의 확충만큼 도서관 자체의 확충이 서구 도서관 이용 환경 개선에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이상의 광주광역시 지역 현황 분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광주는 인구 150만 전후의 호남지방 최대의 대도시로, 생산가능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72.5%에 해당하는 도시이다. 이 중에서도 광주대표도서관 부지인 치평동이 서구는 광주 전체 평균보다 생산가능인구가 77.5%로 높은 활성화된 자치구인데, 치평동에는 공공

〈표 5〉 광주광역시 공공도서관 환경 관련 지표

| | 2015 | | 2016 | | 2017 | | 2018 | | 2019 | | |
|-------|--------------|-----------------|--------------|-----------------|--------------|-----------------|--------------|-----------------|--------------|-----------------|--------|
| | 1관당 봉사대상 인구수 | 사서 1인당 봉사대상 인구수 | 1관당 봉사대상 인구수 | 사서 1인당 봉사대상 인구수 | 1관당 봉사대상 인구수 | 사서 1인당 봉사대상 인구수 | 1관당 봉사대상 인구수 | 사서 1인당 봉사대상 인구수 | 1관당 봉사대상 인구수 | 사서 1인당 봉사대상 인구수 | |
| 광주광역시 | 70,105 | 13,631 | 66,782 | 12,557 | 63,642 | 12,301 | 63,449 | 12,367 | 63,325 | 11,290 | |
| 자치구 | 동구 | 32,928 | 8,980 | 31,930 | 8,708 | 31,816 | 7,342 | 31,492 | 7,267 | 32,862 | 7,042 |
| | 서구 | 61,006 | 12,201 | 61,916 | 11,056 | 61,391 | 10,963 | 60,834 | 10,489 | 60,195 | 9,709 |
| | 남구 | 55,330 | 10,060 | 54,932 | 10,463 | 43,691 | 9,498 | 43,274 | 10,303 | 43,612 | 9,086 |
| | 북구 | 111,579 | 12,398 | 110,267 | 11,921 | 109,695 | 12,905 | 109,943 | 12,935 | 108,383 | 11,717 |
| | 광산구 | 80,151 | 28,625 | 67,175 | 20,152 | 67,355 | 19,244 | 67,425 | 19,264 | 67,553 | 17,622 |

도서관이 별도로 없다. 서구는 1관당 사서수의 경우 다른 자치구에 비해 적지 않지만 장서 수의 측면에선 광주 전체 평균 대비 낮다. 그러나 도서관 이용 관련 지표에서 서구는 가장 규모가 큰 자치구인 북구 다음으로 많은 방문자수와 대출 도서량을 보이고 있어, 도서관에 대한 이용 수요가 높은 자치구이다.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1관당 봉사대상 인구수도 자치구 중 감소 추세가 가장 낮기 때문에, 도서관, 특히 장서에 대한 수요가 높고 활성화된 자치구로서 서구, 그 중 공공도서관이 위치하지 않은 치평동에 광주대표도서관 건립이 필요하다 판단된다.

광주광역시 공공도서관 근무 사서, 공공도서관 이용 및 이용 경험자(이하 이용자)이다. 사서와 도서관을 별도의 조사대상으로 나눈 이유는, 업무를 수행하며 대표도서관의 '지역도서관 지원협력'이라는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사서의 주관적 인식을 탐색하기 위함이다.

또한 기관 조사의 경우 필요성 등 개인의 인식이 아니라 해당 기관의 실제 정보자원 이용 현황을 묻는 문항이기 때문에, 사서 개인의 인식과는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인인 사서, 이용자, 기관 등 3가지 대상에 따라 나누고, 조사문항은 타 광역단체의 대표도서관 건립 또는 운영 관련 연구용역보고서를 참고하여 도출하였다. 형식, 내용, 서비스를 고려하여 도출 문항을 정보자원의 유형·주제·수준 등 3개 분야로 나누었다. 최종적인 장서개발정책 수립의 근거 문항은 다음 <표 6>과 같다.

정보자원의 유형과 주제는 공통적으로 선호도, 필요도, 이용 정도, 이관 필요도라는 문항을

3. 연구설계

3.1 조사문항 도출

조사대상은 개인과 기관으로 나뉜다. 개인은

<표 6> 장서개발정책 수립 근거 문항

| 인식 문항 | | 응답자 | | | 척도 | 유관 출처 |
|----------------|---------------------|-----|-----|-----|-----|---|
| | | 사서 | 이용자 | 도서관 | | |
| 정보 자원 유형 | 선호 정보자원 유형 | ○ | ○ | | *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 253; 전북 행정발전연구원, 2020, 463; 창원문성대학교 산학협력단, 2016, 254;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016, 616 |
| | 필요 정보자원 유형 | ○ | ○ | | * | |
| | 정보자원 이용 정도 | | | ○ | * | |
| | 자료 이관 필요정도 | ○ | | | ** | |
| | 특성화장서 유형 | ○ | ○ | | * | |
| 정보 자원 주제 | 선호 정보자원 주제 | ○ | ○ | | *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 252; 전북 행정발전연구원, 2020, 464;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016, 616 |
| | 필요 정보자원 주제 | ○ | ○ | | * | |
| | 정보자원 이용 정도 | | | ○ | * | |
| | 자료 이관 필요정도 | ○ | | | ** | |
| 정보 자원 수준 | 근무/이용도서관 요구 정보자원 수준 | ○ | ○ | | ***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 251, 253 |
| | 대표도서관 요구 정보자원 수준 | ○ | ○ | | *** | |

* 5순위 서열척도, ** 4점 리커트, *** 5점 리커트

공유한다. 선호도는 전북행정발전연구원(2020),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2016)의 연구에서, 필요 정보자원의 유형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2014)과 창원문성대학교 산학협력단(2016)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되었다. 선호도와 필요도는 장서관발에 있어 개인의 인식을 세분하는 문항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 인식에서도 세분화된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유형과 주제에서 동일한 문항으로 선호도와 필요도를 모두 반영하여 조사하였다. 동일한 문항을 2단으로 측정하는 방식은 LibQUAL+에서 최소 기대치-최대 기대치-이용한 서비스 수준 등 3단으로 나뉘어서 측정하는 방식(심원식, 이은철, 2013, 247-248)을 차용하였다. 단 기대 수준 등 단계별 층위에 대한 척도는 수준 문항에서 이미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용자와 사서의 요구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탐색하는 선행연구의 문항을 반영하여 '선호'와 '필요'로 양분하였다.

이상의 문항이 개인의 인식이라면, 실제 인식이 실천으로 반영되는 이용 정도 또한 조사될 필요가 있어 상기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문항을 추가하였다. 단 이용 정도 문항의 경우 개인의 주관적 인상에 근거한 자기기입식 조사가 아닌, 도서관 단위에서의 객관적 데이터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을 도서관으로 분배하였다.

유형별·주제별 자료 이관 필요 정도는 지역 공공도서관과의 장서 운영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문항이며, 특성화장서 유형의 경우 대표도서관의 수행 역할 중 '시·도 단위 지식정보센터'의 개념이 시·도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의 제공 뿐 아니라, '시·도 행정정보·향토자료 수집·보존' 등 대표도서관으로서의 광역단체 단위 정체성에 근거한 장서관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윤희윤, 2017) 추가하였다.

3.2 조사 계획 및 응답자 특성

조사 대상은 광주광역시 공공도서관 이용자와 사서, 광주광역시 23개 공공도서관(2020년 기준)이었다. 사서와 이용자 대상 조사는 2020년 9월 2일부터 10월 5일까지 실시되었고, 구글 설문지 URL이 포함된 협조 공문 배포를 통한 비대면 조사로 실시되었다. 이 중, 도서관에서 설문지를 출력하여 이용자에게 오프라인 작성 및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었다. 23개 기관 대상 설문지는 각 기관에 설문지 한글 파일을 송부하여 연구보조원의 이메일로 회신받았다. 조사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이용자는 사서 공무원에게 협조 요청 등을 통하였기 때문에 모집단 대비 정확한 배포율이

<표 7> 설문 배포 및 회수 현황

| 대상자 | | 모집단 | 배포(율) | 회수(율) | 최종 분석대상 |
|-----|-----|-----------|-----------|-----------|-----------|
| 개인 | 이용자 | 1,454,154 | - | 99(0.01%) | 98(0.01%) |
| | 사서 | 130 | 130(100%) | 72(55.4%) | 68(52.3%) |
| | 총계 | - | - | 171 | 166 |
| 기관 | | 23 | 23(100%) | 20(87.0%) | 20(87.0%) |

* 괄호 안은 모집단 대비 퍼센트

산출되지 않았고, 사서 130명(100%), 기관 23개관(100%)에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최종 회수율은 이용자 99명(0.01%), 사서 72명(55.4%), 기관 20개관(87.0%)이었다. 이 중 중복응답으로 이용자 1건, 사서 4건의 조사가 제거되어 최종적으로 이용자 98명(0.01%), 사서 68명(52.3%), 기관 20개관(87.0%)의 응답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이용자의 응답률이 모집단 대비 저조한 이유는 조사 기간에 코로나19에 따른 정책으로 휴관한 도서관이 많아 설문 배포 이외에 참여 독려 및 홍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설문지 배포 또한 구글 설문지 URL을 통한 비대면 조사였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의 설문 참여가 어려웠고,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도서관에 접근하는 계층은 한정되었으므로 회수 부수가 저조하였다. 표본의 대표성 측면에서 이 연구의 한계점에 해당한다. 단 중심극한정리에 근거하여 단일 표본의 크기가 30개 이상일 경우 정규분포로 가정하기 때문에 설문에 응한 이용자의 경향성을 통계적으로 검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제거부수를 제외한 이용자 조사결과 또한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이 117명(70.5%), 남성이 49명(29.5%)로 여성이 더욱 많이 응답했으며, 연령은 20대가 34명(20.5%), 30대가 64명(38.6%), 40대가 34명(20.5%), 50대가 26명(15.7%), 60대 이상이 5명(3.0%)으로 3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20대와 40대, 50대, 60대 이상 순으로 나타난다.

이용자 98명의 응답 시점 기준 1년 간 도서관 이용여부 및 빈도는 다음과 같다. 이용한 적이 있는 이용자가 98명 중 76명(77.6%), 없는 이

용자가 22명(22.4%)이다. 이용한 적이 있는 이용자 중 2~3달에 1번 이용자가 22명(28.9%), 1달에 1~2번 이용자가 32명(42.1%), 1주일에 1~2번 이용자가 14명(18.4%), 1주일에 3번 이상 이용자가 8명(10.5%)로 1달에 1~2번 이용하는 이용자가 가장 많다.

사서 담당 업무의 경우, 한 사서가 여러 가지 업무를 복수로 담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중응답 방식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29명(42.6%), 자료실·열람실 운영이 18명(26.5%), 장서개발·관리가 14명(20.6%), 기관 간 대외협력이 12명(17.6%), 도서관 전산업무가 11명(16.2%), 특정계층 정보서비스가 10명(14.7%), 참고봉사서비스가 5명(7.4%)이다.

3.3 분석방법

5순위 서열척도로 조사를 실시한 문항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응답자 수와 별개로 순위별 중요도 식별을 위해 1위 5점부터 5위 1점까지 가중치를 부여해 합산하였다. 문항 중 선호도와 필요도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하여, 유형별·주제별로 선호 및 필요 정보자원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서열척도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Spearman 등위상관계수 분석을 사용하였다. 4점 또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를 실시한 문항은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이 중 현재 근무/이용하는 도서관의 정보자원 수준과 대표도서관에 요구하는 정보자원의 수준은 Pearson 상관계수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데이터의 정리 도구로는 EXCEL을, 분석 도구로는 SPSS 22를 활용하였다.

4. 분석결과

4.1 기초 분석

4.1.1 정보자원 유형별 분석

정보자원 유형 분석에서 선호 및 필요 정보 자원 유형 순위는 다음 <표 8>과 같다.

가중치합을 기준으로 선호도는 단행본(753), 전자책(419), 연속간행물(372), 시청각자료(192) 등 순으로 높으며 필요도는 단행본(510), 전자책(405), 연속간행물(247), 웹DB(232) 등 순이다. 순위와 무관하게 유형을 1~5순위 내로 선택한 응답자의 수를 기준으로 선호도는 단행본(158명), 전자책(127명), 연속간행물(121명), 시청각자료(85명) 등 순이고 필요도는 단행본(125명), 전자책(111명), 시청각자료(90명), 연속간행물(84명) 등 순이다. 근소한 차이를 제외하고 모든 유형에서 선호도와 필요도 순위가 일

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기관별 정보자원 유형별 이용 순위는 다음 <표 9>와 같다.

가중치합을 기준으로 이용률은 단행본(100), 연속간행물(64), 전자책(52), 특정대상 지원자료(46), 시청각자료(24) 등 순이다. 순위와 무관하게 해당 유형의 이용률이 상위권(1~5순위 내)이라고 응답한 선택 기관 수를 기준으로는 단행본과 특정대상 지원자료(20개관), 연속간행물(19개관), 전자책(18개관), 시청각자료(12개관) 순으로 이용률이 높다. 학술논문집, 기술보고서, 고문서 및 고서는 모든 기관에서 상위권 이용률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대상 지원자료는 이용자 전체의 선호도나 필요도는 낮지만(가중치합 기준 선호도 8위, 필요도 9위, 응답자 수 기준 선호도 8위, 필요도 9위) 응답한 20개 기관 모두 이용률 상위권(1~5순위)으로 특정대상 지원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표 8> 선호 및 필요 정보자원 유형 순위

| 정보자원 유형 | 가중치합* | | 순위별 응답자수 | | | | | | | | | | 선택 응답자수 총계 | |
|-------------|-------|-----|----------|----|-----|----|-----|----|-----|----|-----|----|---------------|-----|
| | |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4순위 | | 5순위 | | | |
| | 선호 | 필요 | 선호 | 필요 | 선호 | 필요 | 선호 | 필요 | 선호 | 필요 | 선호 | 필요 | 선호 | 필요 |
| 단행본 | 743 | 510 | 135 | 83 | 12 | 9 | 1 | 8 | 7 | 10 | 3 | 15 | 158 | 125 |
| 연속간행물 | 372 | 247 | 3 | 5 | 52 | 28 | 32 | 22 | 19 | 15 | 15 | 14 | 121 | 84 |
| 전자저널 | 177 | 189 | 0 | 4 | 6 | 13 | 23 | 18 | 34 | 24 | 16 | 15 | 79 | 74 |
| 웹DB | 169 | 232 | 7 | 18 | 6 | 18 | 20 | 13 | 13 | 10 | 24 | 11 | 70 | 70 |
| 학술논문집 | 128 | 134 | 5 | 4 | 6 | 11 | 14 | 11 | 11 | 14 | 15 | 7 | 51 | 48 |
| 기술보고서 | 34 | 66 | 0 | 2 | 1 | 4 | 7 | 5 | 4 | 8 | 1 | 9 | 13 | 28 |
| 고문서 및 고서 | 63 | 125 | 1 | 8 | 6 | 5 | 6 | 13 | 4 | 8 | 8 | 10 | 25 | 44 |
| 전자책 | 419 | 405 | 13 | 27 | 56 | 41 | 28 | 26 | 16 | 11 | 14 | 6 | 127 | 111 |
| 시청각자료 | 192 | 229 | 1 | 4 | 12 | 16 | 21 | 23 | 25 | 29 | 26 | 18 | 85 | 90 |
| 박물 | 40 | 96 | 0 | 3 | 2 | 4 | 3 | 12 | 9 | 10 | 5 | 9 | 19 | 38 |
| 특정대상 지원자료** | 76 | 113 | 0 | 3 | 5 | 6 | 4 | 6 | 14 | 16 | 16 | 24 | 39 | 52 |

* 가중치는 1순위=5점, 2순위=4점, 3순위=3점, 4순위=2점, 5순위=1점으로 부여하여 합산

** 쉬은책, 큰글씨도서, 점자도서, 오디오북, 외국어도서 등 지식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자료

〈표 9〉 정보자원 유형별 이용 순위

| 정보자원 유형 | 가중치합* | 순위별 기관수 | | | | | 선택 기관 수 |
|-------------|-------|---------|-----|-----|-----|-----|---------|
| |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
| 단행본 | 100 | 20 | - | - | - | - | 20 |
| 연속간행물 | 64 | - | 11 | 4 | 4 | - | 19 |
| 전자저널 | 5 | - | - | 1 | - | 2 | 3 |
| 웹DB | 1 | - | - | - | - | 1 | 1 |
| 학술논문집 | - | - | - | - | - | - | - |
| 기술보고서 | - | - | - | - | - | - | - |
| 고문서 및 고서 | - | - | - | - | - | - | - |
| 전자책 | 52 | - | 4 | 8 | 6 | - | 18 |
| 시청각자료 | 24 | - | 2 | 1 | 4 | 5 | 12 |
| 박물 | 1 | - | - | - | - | 1 | 1 |
| 특정대상 지원자료** | 46 | - | 3 | 6 | 5 | 6 | 20 |
| 무응답 | 7 | - | - | - | 1 | 5 | 6 |

* 가중치는 1순위=5점, 2순위=4점, 3순위=3점, 4순위=2점, 5순위=1점으로 부여하여 합산

** 쉬운책, 큰글씨도서, 점자도서, 오디오북, 외국어도서 등 지식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자료

실제 이용자의 인식과 도서관 현장에서의 이용률 차이가 뚜렷한 정보자원 유형이다.

특성화장서로 필요한 정보자원 유형 순위는 다음 〈표 10〉과 같다.

가중치합을 기준으로 특성화장서가 필요하다고 나타난 유형은 단행본(408), 시청각자료(284), 학술논문집(252), 연속간행물과 웹DB(각 249), 고문서 및 고서(224), 전자저널(210) 등 순이다. 순위와 무관하게 해당 유형을 상위권(1~5위)으로 선택한 응답자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단행본(108명), 시청각자료(103명), 학술논문집(86명), 웹DB(84명) 등 순이다. 가장 보편적인 정보자원 유형인 단행본에 대한 수요가 많았고, 응답자 수로는 시청각자료에 대한 수요가 그 뒤를 잇고 있었다. 보편적인 정보자원에 비해 특성화장서의 경우 학술논문집, 웹DB, 고문서 및 고서, 전자저널 등 연구 또는 전문자료에 해당하는 유형에서도 수요가 나타났지만 격차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전자자원을 제외한 물리적 정보자원 유형별로 대표도서관으로 이관되어야 할 필요성을 사서 68명에게 질문한 결과는 다음 〈표 11〉과 같다.

이관 필요성이 높은 정보자원 유형은 고문서 및 고서(3,588), 박물(3,224), 기술보고서(3,206), 학술논문집(3,103) 등 순이다. 4점 리커트 척도로 중간 값이 2.5인데, 평균이 2.5 이하로 이관 필요성이 낮은 정보자원 유형은 단행본(1,791)과 연속간행물(1,910), 시청각자료(2,403)였다.

4.1.2 정보자원 주제별 분석

정보자원 주제 분석에서 선호 및 필요 정보자원 주제 순위는 다음 〈표 12〉와 같다.

가중치합을 기준으로 선호도는 문학(561), 사회과학(406), 역사(323), 예술(194) 등 순으로 높았으며 필요도는 문학(360), 역사(265), 사회과학(261), 시정자료(208) 등 순이다. 주제 선호도를 상위권(1~5위)로 선택한 응답자의 수를 기

〈표 10〉 특성화장서 정보자원 유형 순위

| 정보자원 유형 | 가중치합* | 순위별 응답자수 | | | | | 선택 응답자수 총계 |
|-------------|-------|----------|-----|-----|-----|-----|---------------|
| |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
| 단행본 | 408 | 57 | 13 | 11 | 11 | 16 | 108 |
| 연속간행물 | 249 | 15 | 25 | 16 | 8 | 10 | 74 |
| 전자저널 | 210 | 5 | 21 | 18 | 19 | 9 | 72 |
| 웹DB | 249 | 14 | 17 | 21 | 16 | 16 | 84 |
| 학술논문집 | 252 | 16 | 11 | 25 | 19 | 15 | 86 |
| 기술보고서 | 68 | 4 | 5 | 3 | 7 | 5 | 24 |
| 고문서 및 고서 | 224 | 17 | 15 | 11 | 19 | 8 | 70 |
| 전자책 | 194 | 6 | 15 | 20 | 17 | 10 | 68 |
| 시청각자료 | 284 | 19 | 16 | 17 | 23 | 28 | 103 |
| 박물 | 151 | 4 | 16 | 10 | 12 | 13 | 55 |
| 특정대상 지원자료** | 53 | 3 | 2 | 5 | 11 | 23 | 53 |

* 가중치는 1순위=5점, 2순위=4점, 3순위=3점, 4순위=2점, 5순위=1점으로 부여하여 합산

** 쉬운책, 큰글씨도서, 점자도서, 오디오북, 외국어도서 등 지식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자료

〈표 11〉 정보자원 유형별 이관 필요정도

| 정보자원 유형 | 평균 | 표준편차 | 정보자원 유형 | 평균 | 표준편차 |
|---------|-------|-------|------------|-------|--------|
| 단행본 | 1.791 | .8900 | 고문서 및 고서 | 3.588 | .7378 |
| 연속간행물 | 1.910 | .8417 | 시청각 자료 | 2.403 | .9783 |
| 학술논문집 | 3.103 | .8489 | 박물 | 3.224 | .8433 |
| 기술보고서 | 3.206 | .8562 | 특정대상 지원자료* | 2.642 | 1.0467 |

* 결측값은 평균으로 처리

* 쉬운책, 큰글씨도서, 점자도서, 오디오북, 외국어도서 등 지식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자료

〈표 12〉 선호 및 필요 정보자원 주제 순위

| 정보자원 주제 | 가중치합* | | 순위별 응답자수 | | | | | | | | | | 선택 응답자수 총계 | |
|---------|-------|-----|----------|----|-----|----|-----|----|-----|----|-----|----|---------------|-----|
| | |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4순위 | | 5순위 | | | |
| | 선호 | 필요 | 선호 | 필요 | 선호 | 필요 | 선호 | 필요 | 선호 | 필요 | 선호 | 필요 | 선호 | 필요 |
| 총류 | 144 | 203 | 14 | 21 | 4 | 7 | 6 | 13 | 12 | 10 | 16 | 11 | 52 | 62 |
| 철학 | 177 | 95 | 3 | 3 | 18 | 11 | 11 | 4 | 22 | 9 | 13 | 6 | 67 | 33 |
| 종교 | 55 | 52 | 3 | 3 | 3 | 3 | 4 | 5 | 4 | 4 | 8 | 2 | 22 | 17 |
| 사회과학 | 406 | 261 | 27 | 17 | 28 | 13 | 39 | 21 | 15 | 20 | 12 | 21 | 121 | 92 |
| 자연과학 | 161 | 190 | 5 | 6 | 13 | 17 | 13 | 17 | 16 | 15 | 13 | 11 | 60 | 66 |
| 기술과학 | 177 | 160 | 7 | 11 | 14 | 11 | 16 | 8 | 15 | 14 | 8 | 9 | 60 | 53 |
| 예술 | 194 | 167 | 7 | 7 | 14 | 10 | 15 | 12 | 19 | 19 | 20 | 18 | 75 | 66 |
| 언어 | 92 | 95 | 0 | 1 | 10 | 9 | 8 | 8 | 9 | 12 | 10 | 6 | 37 | 36 |
| 문학 | 561 | 360 | 80 | 41 | 24 | 16 | 11 | 18 | 12 | 12 | 8 | 13 | 135 | 100 |
| 역사 | 323 | 265 | 11 | 9 | 25 | 17 | 35 | 29 | 25 | 27 | 13 | 11 | 109 | 93 |
| 향토자료 | 64 | 316 | 3 | 31 | 6 | 23 | 2 | 15 | 4 | 6 | 11 | 12 | 26 | 87 |
| 시정자료 | 46 | 208 | 3 | 10 | 3 | 23 | 1 | 10 | 4 | 7 | 8 | 22 | 19 | 72 |

* 가중치는 1순위=5점, 2순위=4점, 3순위=3점, 4순위=2점, 5순위=1점으로 부여하여 합산

준으로, 문학(135명), 사회과학(121명), 역사(109명), 예술(75명) 등 순이었고, 필요도는 문학(100명), 역사(93명), 사회과학(92명), 향토자료(87명) 등 순이다. 대부분의 주제분야에서 선호도와 필요도가 유사한 순위로 나타났으나, 철학이나 향토자료, 시정자료의 경우 선호도와 필요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철학의 경우 선호도는 중위권(가중치합 기준 5위, 응답자 수 기준 5위)이지만 필요도가 최하위권(가중치합 기준 10위, 응답자 수 기준 11위)이다. 반면 향토자료와 시정자료는 선호도는 최하위(가중치합 및 응답자 수 각각 향토자료 1위, 시정자료 12위)지만 필요도는 상위권 또는 중위권(가중치합 기준 향토자료 2위, 시정자료 5위, 응답자 수 기준 향토자료 4위, 시정자료 5위)이다. 철학의 경우 선호하는 비중은 있으나 필요하지는 않으며, 향토자료와 시정자료의 경우 선호하지는 않으나 도서관에서 소장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정보자원 주제별 이용 순위는 다음 <표 13>과 같다.

가중치합을 기준으로 이용률은 문학(100), 사회과학(77), 역사(51), 기술과학(25), 자연과학(22) 등 순이다. 순위와 무관하게 해당 주제의 이용률이 상위권(1~5순위)이라고 응답한 선택 기관 수를 기준으로 문학(20개관), 사회과학(19개관), 기술과학(14개관) 순으로 이용률이 높다. 향토자료, 시정자료는 모든 기관에서 상위권 이용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보자원 주제별로 대표도서관으로 이관되어야 할 필요성을 사서 68명에게 질문한 결과는 다음 <표 14>와 같다.

이관 필요성이 높은 정보자원 주제는 광주광역시 시정자료(3,544), 지역향토자료(3,485), 역사(2,015) 등 순이다. 4점 리커트 척도로 중간값이 2.5인데, 평균이 2.5 이상으로 이관 필요성이 높은 정보자원 유형은 광주광역시 시정자료(3,544)와 지역향토자료(3,485)가 유일했고 이

<표 13> 정보자원 주제별 이용 순위

| 정보자원 주제 | 가중치합* | 기관 수 | | | | | 선택 기관 수 |
|---------|-------|------|-----|-----|-----|-----|---------|
| |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
| 총류 | 5 | - | 1 | - | - | 1 | 2 |
| 철학 | 9 | - | - | - | 3 | 3 | 6 |
| 종교 | 4 | - | 1 | - | - | - | 1 |
| 사회과학 | 70 | - | 14 | 4 | 1 | - | 19 |
| 자연과학 | 22 | - | 1 | 4 | 2 | 2 | 9 |
| 기술과학 | 25 | - | - | 4 | 3 | 7 | 14 |
| 예술 | 12 | - | - | 1 | 3 | 3 | 7 |
| 언어 | 2 | - | - | - | - | 2 | 2 |
| 문학 | 100 | 20 | - | - | - | - | 20 |
| 역사 | 51 | - | 3 | 7 | 8 | 2 | 20 |
| 향토자료 | - | - | - | - | - | - | - |
| 시정자료 | - | - | - | - | - | - | - |

* 가중치는 1순위=5점, 2순위=4점, 3순위=3점, 4순위=2점, 5순위=1점으로 부여하여 합산

〈표 14〉 정보자원 주제별 이관 필요정도

| 정보자원 주제 | 평균 | 표준편차 | 정보자원 주제 | 평균 | 표준편차 |
|---------|-------|--------|---------|-------|-------|
| 총류 | 1.868 | 0.8447 | 예술 | 1.925 | .8693 |
| 철학 | 1.716 | 0.7083 | 언어 | 1.761 | .7142 |
| 종교 | 1.821 | 0.7516 | 문학 | 1.701 | .7333 |
| 사회과학 | 1.806 | 0.7773 | 역사 | 2.015 | .8893 |
| 자연과학 | 1.791 | 0.7439 | 향토자료 | 3.485 | .6800 |
| 기술과학 | 1.836 | 0.7841 | 시정자료 | 3.544 | .6788 |

※ 결측값은 평균으로 처리

외에는 모두 평균 2.5 이하였다. 이 중 이관 필요성이 가장 낮은 주제는 문학(1.701), 철학(1.716), 언어(1.761) 등 순이었다.

4.1.3 정보자원 수준 분석

현재 근무 또는 이용하고 있는 정보자원의 체감 자원 수준과, 대표도서관에서 갖추어야 할 자원의 요구 수준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사서와 이용자에게 질의한 결과는 다음 〈표 15〉와 같다.

근무/이용도서관 자원 수준은 평균 1.837이었고, 사서는 평균 1.721, 이용자는 평균 1.918로 체감하고 있었다. 1은 '가장 기초적이며 최소한의 자료만 수집하고 있다', 2는 '무엇이 궁금할 때 찾아볼 수 있는 수준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로, 컨스펙터스 기준 최소에서 기본 수준의 장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도서관에 요구하는 수준 평균은 3.325였고, 사서는 평균 3.265, 이용자는 평균

3.367을 요구하고 있었다. 3은 '무엇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의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였기 때문에, 연구 수준에 이르지 않더라도 기본 수준보다는 심화된 장서 수준을 대표도서관에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상관관계 분석

개인의 인식 상 선호 정보자원과 필요 정보자원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Spearman 등위상관계수 분석을 실시하였다. 응답자들은 1순위에서 5순위를 지정하고 다른 것들은 선택하지 않았는데, 해당 순위는 6순위로 가정하여 처리하였다. 먼저, 선호-필요 정보자원 유형의 상관관계 분석은 다음 〈표 16〉과 같다.

사서 집단의 단행본, 전자저널, 특정대상 지원 자료를 제외하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 먼저, 응답자 전체로 전자책(0.568), 고문서 및 고서(0.483), 학술논문집(0.446), 박

〈표 15〉 요구 정보자원 수준 비교

| 문항 | 사서 | | 이용자 | | 전체 |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근무/이용도서관 자원 수준 | 1.721 | 0.7091 | 1.918 | 0.6837 | 1.837 | 0.6990 |
| 대표도서관 요구수준 | 3.265 | 0.8217 | 3.367 | 1.0393 | 3.325 | 0.9548 |

〈표 16〉 선호-필요 정보자원 유형 상관관계 분석

| 응답자 | 단행본 | 연속간행물 | 전자저널 | 웹DB | 학술논문집 | 기술보고서 | 고문서 및 고서 | 전자책 | 시청각자료 | 박물 | 특정대상 지원자료 |
|-----|--------|--------|--------|--------|--------|--------|----------|--------|--------|--------|-----------|
| 전체 | .268** | .388** | .357** | .367** | .446** | .424** | .473** | .568** | .402** | .437** | .157* |
| 사서 | .032 | .466** | .168 | .266* | .417** | .314** | .260* | .266* | .308* | .276* | .010 |
| 이용자 | .338** | .353** | .478** | .434** | .423** | .515** | .633** | .694** | .457** | .547** | .258* |

* < 0.05, ** < 0.01, *** < 0.001

물(0.437), 기술보고서(0.424), 시청각자료(0.402)가 0.4 이상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중 전자책과 시청각자료는 〈표 3〉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선호도(가중치합 기준 전자책 2위, 연속간행물 3위)와 필요도(가중치합 기준 전자책 2위, 연속간행물 3위)가 상위권이다. 반면 고문서 및 고서, 학술논문집, 박물, 기술보고서는 선호도(가중치합 기준 고문서 및 고서 9위, 학술논문집 7위, 박물 10위, 기술보고서 11위)와 필요도(가중치합 기준 고문서 및 고서 8위, 학술논문집 7위, 박물 10위, 기술보고서 11위)가 하위권이다. 즉 정보자원 유형은 선호하기도 하고 필요하기도 한 자원인 전자책과 연속간행물, 선호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고 생각되는 자원인 고문서 및 고서, 박물, 기술보고서로 나뉜다.

사서 집단에서도 연속간행물(0.466), 학술논문집(0.417)은 0.4 이상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편 이용자 집단에서는 전자책(0.694), 고문서 및 고서(0.633), 박물(0.547), 기술보고서(0.515), 전자저널(0.478), 시청각자료(0.457), 웹DB(0.434), 학술논문집(0.423) 단행본·연속간행물·특정대상 지원자료를 제외한 모든 정보자원 유형에서 상관관계가 0.4 이상이다. 이는 사서 집단은 도서관 정보자원을 업무처리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필요가 개인의 기호

를 반영한 선호이기보다 업무처리의 용이성과 일관성을 고려한 ‘선호도’와 이용자 서비스를 위한 ‘필요도’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용자는 도서관 정보자원을 이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호와 필요가 유사한 관점인 것으로 해석된다.

주지할만한 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특정대상 지원자료(0.157)이다. 가중치합 기준으로는 선호도 8위, 필요도 9위지만, 필요도 5순위에 특정대상 지원자료를 선택한 응답자가 다른 정보자원 유형에 비해 많았다. 선호와 필요가 일관된 이용자 집단에서도 상관관계가 가장 낮은 정보자원 유형이 특정대상 지원자료(0.258)이다. 음수 값이 아니기 때문에 선호하는데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선호하지 않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등의 역관계가 아니라, 개인에 따라 해당 자원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달라 일관된 패턴을 찾기 어려운 것이다. 특정대상 지원자료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보자원 유형이기 때문에, 개인의 인식과 별개로 지역사회 이용 대상에 대한 구체적 분석 등 장서개발정책에서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선호-필요 정보자원 주제의 상관관계 분석은 다음 〈표 17〉과 같다.

〈표 17〉 선호-필요 정보자원 주제 상관관계 분석

| 응답자 | 총류 | 철학 | 종교 | 사회 과학 | 자연 과학 | 기술 과학 | 예술 | 언어 | 문학 | 역사 | 향토 자료 | 시정 자료 |
|-----|--------|--------|--------|----------|----------|----------|--------|--------|--------|--------|----------|----------|
| 전체 | .412** | .489** | .702** | .225** | .412** | .446** | .493** | .223** | .467** | .282** | .299** | .202** |
| 사서 | .064 | .470** | .567** | .136 | .124 | .264* | .368** | .186 | .267* | .181 | .112 | .100 |
| 이용자 | .609** | .532** | .753** | .362** | .477** | .525** | .571** | .244* | .589** | .325** | .416** | .252* |

* < 0.05, ** < 0.01, *** < 0.001

사서 집단의 총류, 사회과학, 자연과학, 언어, 역사, 향토자료, 시정자료를 제외하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 먼저, 전체 단위에서는 종교(0.702), 예술(0.493), 철학(0.489), 문학(0.467), 기술과학(0.446), 총류와 자연과학(각 0.412)이 0.4 이상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 중 종교(0.702)는 일반적인 사회과학 분석 기준으로 강한 상관관계로 나타나며, 전반적으로 선호와 필요가 일치하지 않는 사서 집단에서도 가장 높은 상관관계(0.567), 이용자 집단에서도 가장 높은 상관관계(0.753)이다. 종교는 가중치 합을 기준으로 선호도가 12개 분야 중 11위이며, 필요도는 12개 분야 중 12위로 가장 낮지만, 극소수 집단의 확실한 요구가 있는 주제 분야로 해석된다.

한편 사서 집단에서는 종교(0.567), 철학(0.470)이 0.4 이상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용자 집단에서는 종교(0.753), 총류(0.609), 문학(0.589), 예술(0.571), 철학(0.532), 기술과학(0.525), 자연과학(0.477), 향토자료(0.416)이 0.4 이상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이 중 문학은 〈표 7〉에서 나타났던 것과 같이 선호도(가중치 합 기준 1위)와 필요도(가중치 합 기준 1위)가 상위권이다. 특이한 점은 예술과 향토자료인데, 예술은 선호도는 상위권(가중치 합 기준 4위)이었으나 필요도가 하위권(가중치 합 기준 8위)

이고, 향토자료는 선호도는 하위권(가중치 합 기준 10위)지만 필요도는 상위권(가중치 합 기준 2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극되는 상황에서 상관계수가 높다는 것은, 예술 분야 정보자원을 선호하면서도 이를 도서관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향토자료를 선호하지는 않지만 도서관에서 이를 소장하거나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해석된다. 전자의 경우, 예술 분야 정보자원은 도서관이 아닌 다른 문화예술기관에서의 접근성을 고려할 수 있다. 광주는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를 추진하고 있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CGI센터 등이 위치해있고, 이 외에도 1995년부터 현재까지 광주비엔날레를 개최하고 있어 예술 분야의 정보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가 다양하게 조성되어 있다. 한편 향토자료는 이용과 별개로 보존에 목적을 두고, 도서관의 역할개념에 아카이브가 잠재적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현재 근무하거나 이용하는 도서관의 자원과 필요자원의 수준에 대한 Pearson 상관계수 분석은 다음 〈표 18〉과 같다.

전체, 사서 집단, 이용자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 전체 집단으로는 0.307로 약한 상관관계가 있다. 사서와 이용자 중에서는 사서(0.462)

〈표 18〉 현 공공도서관 자원과 대표도서관 기대 자원 수준 상관관계 분석

| 관계 | 전체 | 사서 | 이용자 |
|-------------------|--------|--------|-------|
| 현 도서관 자원-대표도서관 자원 | .307** | .462** | .217* |

* < 0.05, ** < 0.01, *** < 0.001

가 이용자(0.217)보다 조금 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즉, 이용자보다 사서가 보다 일관된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5. 결론

이 연구는 광주대표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대표도서관이 가진 고유한 이중의 역할에 입각해 일반적인 공공도서관으로서 이용자의 정보자원에 대한 기호로서의 인식, 지역도서관을 지원·협력하는 매개도서관으로서 사서의 정보자원에 대한 업무로서의 인식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그 근거로 각 도서관의 실제 장서 이용 정도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장서개발의 핵심이 되는 3개 집단인 사서, 이용자, 도서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서 집단은 선호와 필요의 상관계수가 전반적으로 이용자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상관계수가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도 이용자보다 많았다. 이는 선호와 필요가 개인의 주관적 인식에 의거한 것이며, 이용자는 도서관의 이용 목적에 선호하는 자원에 대한 필요성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선호와 필요의 상관관계가 높았던 반면, 사서는 정보자원을 업무처리의 관점에서 접근하기에 정보자원의 이용, 관리, 법적 근거 등 복합적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인 것

로 보인다.

둘째, 특정대상 지원자료는 선호도와 필요도 모두 순위가 낮았지만, 도서관에 정보자원 유형별 이용 순위를 질의한 결과 응답한 20개관 모두 최대 2위에서 최소 5위까지 특정대상 지원자료 이용률이 12개 중 상위에 위치한다고 응답했다. 선호도와 필요도의 상관계수도 낮거나 유의하지 않았지만, 도서관 현장에서의 잠재적 수요와 이용률이 20개관에서 공통적으로 상위권에 나타나고 있으므로 단순한 수요나 인식만으로 배제해서는 안 되는 정보자원 유형으로서 중요하다.

셋째, 철학은 선호도가 중위권이었으나 필요도가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서들이 뽑은 자료의 이관 필요도 평균이 가장 낮은 정보자원 주제는 문학(1.701) 다음으로 철학(1.716)이었다. 필요도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제별 이관 필요가 낮은 것은 철학 정보자원이 공간을 차지하는 비율이 낮거나, 학문의 특성상 주요 저서 일부가 반복적으로 소비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철학 장서는 이관받기보다 현재 공공도서관에서 반복적으로 소비되고 있는 철학 정보자원과 그 유관 자원들의 주제와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수서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향토자료와 시정자료는 선호도가 최하위권이었으나 필요도가 상위권 또는 중위권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아카이브와 지역학 보존

의 기관으로서 대표도서관이 갖는 역할에 근거한 결과로, 대표도서관에 자료보존의 역할이 사회 상례적으로 의무화되어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향토자료와 시정자료는 모든 도서관이 상위 1위부터 5위까지의 이용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사서 대상 대표도서관 이관 필요성도 향토자료(3,485)와 시정자료(3,544)가 가장 높다는 점으로 나타난다.

다섯째, 현재 광주 지역 공공도서관의 정보자원 수준은 1,837, 대표도서관 요구 정보자원 수준은 3,325로 나타났다. 상관계수는 이용자(0.217)보다 사서가(0.462)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광주의 사서와 이용자는 정보자원 인식이 다르다. 사서는 개인의 기호인 선호와 업무상 필요를 구분하여 인식했지만, 이용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대표도서관은 이용자의 이용 뿐 아니라 사서 업무 또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대표도서관의 서비스 대상자인 사서와 이용자 모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일선 도서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낮은 이용률과 높은 보존가치의 향토자료·시정자료에 대한 보존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또한 대표도서관의 경우 일반적인 공공도서관보다 망라적이고 높은 수준의 정보자원을 구비하도록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자원 수집의 범위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광주대표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서의 업무 지원을 위해 광주대표도서관은 향토자료·시정자료와 고문서 및 고서·박물 등의 보존을 목적인 아카이브로서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자료 이관 절차

및 우선순위에 해당 주제와 정보자원 유형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용자 서비스 활성화 및 일선 공공도서관과의 차별화를 위해 광주대표도서관은 심화된 수준의 정보자원을 수집해야 하며, 단행본·전자책 등의 정보자원을 중점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대표도서관의 정보자원은 컨스펙터스 수준 3(무엇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의 자료) 또는 그 이상 수준을 수집하도록 장서개발정책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표도서관이 위치한 서구는 1관당 장서수는 광주 평균 이하이지만 1관당 방문자수 및 대출도서량이 광주 평균 이상이기 때문에 선호 및 필요도가 높은 단행본과 전자책 장서의 확충이 중요하므로 정보자원 수집의 우선순위에 반영해야 한다.

셋째, 기관의 입장에서 예술 분야 정보자원의 유통을 위해 광주 내 유관 문화예술기관과의 정보자원 공유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술 분야 정보자원은 선호하지만 필요하지는 않다는 결과에 따라, 도서관 내에서 해당 정보자원을 소장 및 관리하기보다 광주 내 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정보자원 제공이나 장서프로그램 개발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정보자원 협력 및 공유 정책은 대표도서관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장서개발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대표도서관이 가진 특수성에 근거하여 정보자원 인식을 사서와 이용자로 나누어 조사하고 이를 비교하였다.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서의 경우 모집단 대비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되었으나 이용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설문 배포 당시 대면 도서관 서비스 중

단으로 인해 모집단 대비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다만 대면 도서관 서비스가 중단된 상황에서도 비대면 설문에 참여할 정도로 도서관 정책에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의 응답했다는 점에서, 도서관의 핵심 이용자 계층의 입장을 통계적으로 검정했다는 데에

의의를 가진다. 둘째, 이용자 식별에 근거한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사서의 근무연차나 이용자의 교육수준 및 직업 등 응답자의 특성을 다각적으로 수집하지 못해 분석의 범위가 한정되었다. 이는 후속연구를 통하여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광주광역시청 [발행년불명]. 기본현황.

출처: <https://www.gwangju.go.kr/contentsView.do?pageId=www138>

김영기, 장덕현, 이용재 (2015). 지역대표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가칭)부산도서관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3), 57-70.

<https://doi.org/10.16981/kliss.46.3.201509.51>

도서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23호.

도서관법. 법률 제18547호.

문화체육관광부 (2020. 1. 31). 지역 공동체의 역량을 키우는 지역대표도서관 역할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7788

문화체육관광부 [n.d.].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공공도서관 통계.

출처: <https://libsta.go.kr/statistics/public/stat>

배순자 (2008). 지역대표도서관의 기능과 지역공공도서관과의 협력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3), 45-59.

심원식, 이은철 (2013). LibQUAL+를 활용한 국내 대학도서관 서비스 품질 측정 사례 조사. 정보관리학회지, 30(2), 245-268. <https://doi.org/10.3743/KOSIM.2013.30.2.245>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 경기도 대표도서관 장서개발정책 및 운영방안 연구. 경기도청.

유미현, 홍소람, 윤가인 (2019). 2019년도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자원조사. 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윤혜영 (2020). 디지털시대의 장서관리 (제5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윤희운 (2017). 지역대표도서관의 법적 위상 및 핵심역량 강화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2), 1-21. <https://doi.org/10.16981/kliss.48.2.201706.1>

인천광역시미추홀도서관 [발행년불명]. 미추홀도서관 연혁.

출처: [https://www.michuholib.go.kr/mchlib/usr/contentsCollection/history.do?header=74
&nav=391&dep=391](https://www.michuholib.go.kr/mchlib/usr/contentsCollection/history.do?header=74&nav=391&dep=391)

전북행정발전연구원 (2020).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전라북도청.

창원문성대학교 산학협력단 (2016). 경남대표도서관 운영 기본계획 수립 연구. 경상남도청.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016). 충남대표도서관 운영 기본계획 수립 연구. 충청남도청.

행정안전부 (2020. 9. 1). 광주광역시 연령별 인구현황(2020년 8월).

출처: <https://jumin.mois.go.kr/#>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Bae, Soonja (2008). A study on the function of regional central library and collaborative role for community public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2(3), 45-59.

Changwon Moonsung University Industry Foundation (2016). Gyeongnam Representative Library Operation Basic Plan Establishment Research. Gyeongsangnam-Do Offic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Industry-Academic Collaboration Foundation (2016). Chungnam Representative Library Operation Basic Plan Establishment Research. Chungcheongnam-Do Office.

Enforcement Decree of Libraries Act. Presidential Decree No. 33023.

Gwangju Metropolitan city. [n.d.]. Basic Status. Available:

<https://www.gwangju.go.kr/contentsView.do?pageId=www138>

Incheon Metropolitan City Michuhol Library. [n.d.]. Michuhol Library History. Available:

<https://www.michuholib.go.kr/mchlib/usr/contentsCollection/history.do?header=74&nav=391&dep=391>

Jeonbuk Public Administration Development Institution (2020). Jeollabuk-do Representative Library Establishment Basic Plan Establishment and Feasibility Review. Jeollabuk-do Office.

Kim, Yooungkee, Chang, Duckhyun, & Lee, Yongjae (2015). A study on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operational plans of local government representing library: with a reference to the library of Busa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6(3), 57-70. <https://doi.org/10.16981/kliss.46.3.201509.51>

Libraries Act. Act No. 18547.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0, January 31). Reinforcing the Role of the Regional Representative Library to Develop the Capacity of the Local Community. Available: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7788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n.d.]. National Library Statistics System - Public Library Statistics. Available: <https://libsta.go.kr/statistics/public/stat>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20, September 1). Population by Age of Gwangju Metropolitan City. Available: <https://jumin.mois.go.kr/#>
- Sim, Wonsik & Lee, Eun-Chul (2013). Service quality assessment of university libraries in Korea using LibQUAL+: a case stud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0(2), 245-268. <https://doi.org/10.3743/KOSIM.2013.30.2.245>
- Yonsei University Industry Foundation (2014). Gyeonggi-Do Representative Library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and Operation Plan Research. Gyeonggi Province Office.
- Yoon, Hee-Yoon (2017). Reinforcing legal status and core competency of regional central library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8(2), 1-21. <https://doi.org/10.16981/kliss.48.2.201706.1>
- Yoon, Hye-Young (2020). *Collection Management in the Digital Age* (the fifth edition).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Yu, Mi-Hyun, Hong, Soram, & Yoon, Ga-In (2019). 2019 Investigation into Urban Regeneration Resource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Gwangju Urban Regeneration Community Center.